

근대 미학의 경계 안에서 페미니즘 미학은 가능한가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책세상, 2009)

윤지영*

1.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곳곳에 거미줄처럼 드리워져 있는 가부장제의 가치와 전제들을 늘 감지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세평을 알고 있으며 그제 자꾸 신경 쓰여 여성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에, 여성주의를 표방한 저서의 서평을 쓰면서도 이렇게 방어적인 진술로 글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는 자신이 또 영 못마땅하지만, 결국은 수시로 떠오르는 무수한 질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답도 실질적인 행동지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매 순간 매 상황을 모면하고 적응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내게, 김주현의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은 그간의 고민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뻐지고 싶은 욕망과 관련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된다.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성’과 관련된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분열적이며, 그러한 분열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외모꾸미기와 관련하여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

* 동의대 국문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미덕도 바로 이 점과 관련된다. 외모 꾸미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욕망과 억압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딜레마이자 가장 보편적이고 즉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미비한 형편이다. 여타의 여성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학문적으로 다룰 경우에는 외모 꾸미기가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영향과 효과를 사회과학적·성별정치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방식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미학과 철학이라는 메스를 들고 오랜 기간 잠복해 있던 병을 드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증세의 근본적인 원인과 형성과정, 그리고 치료법까지도 도출해내고 있다.

이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실감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저술 동기와 문제의식이 얼마나 공감할 만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장담컨대 나의 이 사소한 고백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만으로 많은 여성들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도대체 페미니스트다운 외모란 무엇인가? 페미니스트인 여성이 화장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페미니스트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옳은가? 페미니스트가 내숭을 떨거나 약한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페미니스트라면 거드랑이 털도 내보이고 남성만큼 강력한 힘과 털털한 성품을 보여줘야 하는가? (33쪽)

이 책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서론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 이 책에서 대답을 제시해야 할 이 질문들은 그간 외모 꾸미기와 관련하여 내가 갖고 있던 질문들을 받아 적기라도 한 것 같다. 나는 여성스럽게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꾸며도 좋다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난 후에도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다. 내가 외모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아니 ‘여자답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 혹은 여자다운 걸 싫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외모에 신경을 썼고 여자답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한다는 사실을 남들이 눈치 채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다. 내 몸에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내 외모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본과 상품 논리의 노예가 되기를 승낙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하듯 과제중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드러내놓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며, 농활 같은 곳에 가셔도 여자아이들은 좀처럼 나서지 않는 힘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별례를 보고 놀리는 연약함을 혐오했으며 아무 곳에서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나르시시즘을 경멸했다. 제모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눈썹 손질도 아주 늦게서야 시작했다. 그러나 긴 머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고, 아메바 프린트와 순정만화에나 나올 법한 반지와 목걸이들에 눈이 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나는 감히 입지는 못하고 동생에게 강권하거나 옷장 안에 상표도 떼지 않은 채 걸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름답고 싶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억눌렀던 것이다. 저자의 말을 빌자면 “자신의 욕망을 자기 검열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적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미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고나 할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이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외모를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싶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타인의 시선으로, 특히 못 남

자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고서야 여성으로서의 내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외모 그대로는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자본과 첨단기술만이 그런 꿈을 가능케 하리라는 사실도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다. 기를 쓰고 가부장제의 논리에 저항하려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에 저항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것 인지를 반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기묘한 죄책감 뿐이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강단에 서야하는 사회적 조건은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 전문성을 왜곡시킬 것 같았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20대 후반의 여자에게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권위를 더욱 깎아내릴 것 같았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학생들이 나를 교수도, 학자도, 선생도 아닌 여자로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한 마디로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여성적 아름다움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연구자와 여성, 교수와 여성 사이의 비좁은 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의 아름다움에 대해 탐색할 멋진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고 말았다.

2.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외모 꾸미기에 대한 나의 분열과 갈등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긴 했었다. 그러나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왜 모든 아름다움이 동일해야 하는가.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들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것은 달

잡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아름다움을 요구하는가. 하다못해 식성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말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왜 그렇게도 지독하게 여성들에게만 절실한 것이 되었는가.

이 책이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페미니즘 저서들과 달리 미학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개념들을 검토하고 예술비평적 논증을 통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을 복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꽤 만족스러운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로 인해 특히 여성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그 외중에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답이 다행스러운 이유는 만약 여성들의 권리로 위장하여 여성들에게만 배타적인 억압으로 작용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 본질적이고 유일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그리고 나는 꿈쩍없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정작 여성 개인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강제하는 아름다움이 특수하고 역사적인 것임을 밝힘으로써, 즉 가부장제의 산물로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해방과 자유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여성이 아름다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미학을 대체할 새로운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오늘날 여성들에게 부과된 아름다움의 관념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미학의 이데올로기적 산물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사유가 이성중심주의의 위계적인 관계임을 밝히는 1장과,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적 사유가 가부장제와 결탁하는 과정을 보이는 2장에서 이루어진다. 육체보다는 정신을, 감정이나 감각보다는 이성을, 특수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을, 질료보다는 형상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이성중심주의는 미와 미적인 것들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위계를 적용한다. 근대 이전의 미는 근대 이후의 미적인 것들에 비해 이성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의 계열에 대해서는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근대 미학에 들어 이성의 타자로 규정된 미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여성을 남성의 타자이자 열등한 존재, 결핍된 존재로 규정짓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더해진다. 그 결과 여성은 아름다울지는 모르나 지성을 결여한 존재, 영혼 없는 육체로 규정 되어버린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여성은 육체성의 완결을 통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인정된 다면)의 완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여성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육체와 아름다움 속에 여성을 가둬버리고 만다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렇게 고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억압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가능한 대안들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미적 금욕주의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페미니즘 반미학이 그것이다. 우선, 여성 신체가 감각적 쾌락을 위한 남성 시선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성의 미가 신체미로 국한되는 것을 거부하는 미적 금욕주의가 있다. 이는 다시 육체의 아름다움 대신 정신과 사유의 고양을 지향하는 이상화와 여성성을 지우고 남성성을 표방하는 남성화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미적 금욕주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미와 신체미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부장제 미학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과 남성의 계열을 선택함으로써 이성과 남성이 육체(감성)와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추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르시시즘은 여성미를 억압하거

나 부정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금욕주의의 반대항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나르시시즘이 가부장제 미학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여성미를 권력으로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도취적 나르시시즘은 결코 가부장제 미학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낸시 랭이나 애회 같은 보디 아티스트들의 작업처럼 “가부장제 미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할당한 미의 영역과 규범을” “이용해 성차별적 권력 관계를 역전”시킬 뿐이다.(234쪽)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 신체에 새겨진 가부장제의 결합을 드러내는 저항적 나르시시즘만이 가부장제 미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대안적인 미학 패러다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여성주의적 휴리스틱스”(217쪽)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예술가나 모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의 미적 의미가 탈취당할 수 있”으며, 게다가 자본주의는 그 무엇이든 손쉽게 상품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미학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여성주의적 휴리스틱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출되는 또 다른 기준이 “가부장제의 미의 이상을 벗어나 다양한 미적 가치들”(275쪽)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테마의 아브젝시옹,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도나 헤리웨이의 사이보그 개념 등을 이론적인 토대로 하여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제까지 미학적 탐구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신체, 일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적 가치들을 체현”하는 미학 패러다임을 구성한다. 미의 소유자인 남성들에게는 꽤로 인지되지 않는 여성적 숭고라든지, 기존 세계 전체(주체들)가 공포의 대상들로서 배제했던 타자와의 결합라든지, “형식의 결여, 불균형, 부조화, 외관 손상, 변형, 다양한 불쾌한 현상들”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종래의 가부장제 미학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이 육체 위에 체현될 때 가부장제의 추악함도 함께 폭로된다는 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3.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은 생활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공식적인 언어를 통해 미학이라는 담론 속에 문제들로 정립한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인식과 담론 차원에서 모색함으로써 미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대안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이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미학이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성공하는 여성의 외모 꾸미기 노하우”를 알려주는 처세술책이 아니라 미학의 원리와 기준들을 모색하는 학술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외모 꾸미기에서 어떻게 페미니즘 미학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강령들은 애초 저술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책의 문제의식이 일상의 경험들에서 촉발된 것이니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외모 꾸미기의 방법이 제시될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기대가 이 책의 동기와 저술 목표를 벗어난 문제일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미학 패러다임은 만족할 만큼 명료하며 또 단호하다. 그 명료함과 확실함에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해 지침으로 삼는 기준들은 문제제기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 책에서 마련한 기준들이란 가부장제 미학에서 배제된 것들의 복권이라는 것과 ‘여성적 휴리스틱스’를 거쳤는가 여부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여성적 휴리스틱스를 거쳐 도출된 미학적 실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모 꾸미기로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저자가 줄곧 염려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철저한’이라는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한정사

로서 어찌면 가장 핵심적일지도 모를 문제를 덮어버린다. 게다가 여성적인 휴리스틱스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 구현 양상에 있어서는 반가부장제 미학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가부장제가 규정한 미에서 벗어난 감성들, 공포스럽고 피기스러우며 낯선 감성들은 이미 사이키델릭이나 펑크, 고딕식의 외모 꾸미기로 구현된 바 있고, 이미 다른 문화적 코드로 선점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 경우의 외모 꾸미기는 페미니즘 미학의 외모 꾸미기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인가.

현행 가부장제 미학이 배제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가부장제와 이성중심주의의 위계적 사유체계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현행의 미학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가정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다. 현행하는 것의 반대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는 없다. 지배적 담론에 대응하는 주체의 양상을 동일시와 반동일시, 그리고 비동일시로 구별한 페쇠(Pêcheux)의 견해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단순히 지배적 담론을 반대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지배 담론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동일한 인식론적 그물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다. 저자가 미적 금욕주의나 도취적 나르시시즘을 비판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부정의 방식으로는 스스로 부정한 것에 포섭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은 일상의 문제를 미학적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대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 논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단순화시킨다. 앞서 일상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즉, 개별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었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이와 같이 전위적인 미학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 속하면서 이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인식

의 전환에 도달했으나 결국 그것이 실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미학이 관념이 아닌 실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인 이상, 페미니즘 미학의 문제 역시 한 개인의 선택과 실천의 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학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페미니즘의 영역에서만 특수한 현상도 있다. 이 책이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이 책은 내게 외모 가꾸기를 중심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맥락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낱’ 남성의 시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인가 하는 미련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다.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 속에서 바나나를 놓지 않고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는 원숭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즉각적으로 떠올린다.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반응들을 야기시키는 메카니즘이다. 즉, 죽음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바나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메카니즘 말이다. 그것이 바로 가부장제의 작동 메카니즘이고 실천의 저항선이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식의 철저함이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인식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비해 실천적 변화는 너무 더디다.

그 문제를 이 책의 토대인 미학적 관점과 연관 지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근대 미학에서 작고, 부드럽고, 약하고, 수동적인 형식미가 여성미와 결합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과연 그 작고 약하고 부드럽고 수동적인 형식미와 결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진정한 문제는 여성의 미가 오로지 그와 같은 특수한 경향의 미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성미가 남성들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

지 않는 것 같다.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욕망하는 경우, 남성이 시선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여성미가 대상화되는 것은 그것이 ‘여성적인’ 미이기 때문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크고 거칠고 광활하고 강력한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숭고미가 남성성과 결합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숭고미는 반대로 남성성이 대상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근대 미학이 정의하는 미의 개념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대에는 대상 자체에 객관적 속성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미라고 보았던 것에 반해, 근대 이르러서는 개별 주체가 대상에 대해 주관적,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성, 감각을 미로 재정의한다. 근대의 미의 개념은 자체에 능동적인 주체와 수동적인 미적 대상의 구조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전복이 없이 여성을 대상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가부장제 미학에 대한 대항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근대적 미의 출현이 함묵적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나는 사실이다. 테리 이글턴이 지적했듯이 근대 미학의 성립은 절대주의의 비유기적, 억압적 구조들을 대신하는 “감수성의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즉, 신이나 보편 원리 같이 외부에서 원리와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그러한 원리를 내면화시킨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근대의 미학은 이성과 분리되어 이성의 너머에 가리워져 있던 감성과 감수성, 취향 등의 주관적인 영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근대의 중산 계급을 보편적 주체로 격상시키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사회적 권력을 거기에 예속된 이들의 육체 깊숙이 주입하고, 그리하여 정치적 헤게모니의 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동원”하는, “내면화된 억압”으로 작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미학이 여성의 육체 위에 주입한 미야말로 바로 전형적으로 근대에 의해 “내면화된 억압”이 아닌가. 따라서 가부장

제 미학이 규정한 여성미에 대한 전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여전히 근대 미학의 틀 안에서 사유한다. 이성중심주의적 근대의 미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근대의 미적인 것들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그 가운데 페미니즘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선별해낸다. 미적인 것을 주체가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만 해도 그렇다. 대안적 미학을 제시한 것은 그것이 여성 주체의 자발적인 훈련과 사회적인 규범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제가 이 책이 날카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철저하게 논증을 해서 야심차게 패러다임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페미니즘 미학의 문제는 개개인의 실천의 문제일 뿐인가 하는 아쉬운 회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이다.